

특집논문

신동욱의 시론(詩論) 연구*

유성호**

-
- I. 머리말
 - II. 시론(詩論)의 인식 - 창조적 미관과 민족 중심의 사유
 - III. 시사(詩史)의 서술 - 주체성의 광정과 민족 현실의 증언
 - IV. 시 비평의 고갱이 - 언어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결속
 - V. 마무리
-

I. 머리말

자산(紫山) 신동욱(申東旭, 1932-2020)이 남긴 학술 논문이나 대학 재직 시절 수행했던 강의의 중심축은 언제나 한국 근대소설 혹은 근대 비평사 관련 분야였다. 실제로 대학에서 맡았던 그의 세부전공 역시 ‘현대소설’이었고 또렷한 족적으로 남은 주저(主著)의 범주 또한 대체로 그러한 규정 안에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동욱 특유의 꼼꼼한 자료 섭렵과 집적 그리고 해박한 분석 과정 역시 이러한 학문적 정체성에서 발원하여 그리로 확연하게 귀속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 토론을 맡아준 조강석 교수와 논문 심사를 통해 훌륭한 제언과 지적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근대 산문문학에 나타난 미의식과 그 예술적 성취가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 점에서 그는 동시대의 가장 탁월한 근대소설 연구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시선을 달리하여 바라보면, 신동옥은 시론이나 시사, 시인, 시 작품 연구와 비평에도 상당한 정성과 시간을 할애하여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 어쩌면 적공(積功)의 부피나 넓이에서 그것들은 산문 연구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일관성과 균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근대시 연구의 한편을 신동옥의 경험과 필치가 거두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그 너비와 지속성에서 소설사나 비평사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옥의 내면과 실존을 규율하고 암시하는 더 큰 수원(水源)은 어쩌면 시를 통해 역사와 삶을 모색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신동옥은 언제나 내면 깊숙이 흐르는 어떤 순간의 느낌이나 생각을 침잠과 초월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즐겨 했고 그것을 운문 예술로서의 서정시에 대한 견해로 세상에 제출하였다. 득의의 현실적 성취는 산문 쪽에서 이루었다고 하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파동은 서정시의 미학적 방향을 종종 그리고 강렬하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그가 거두어낸 시론, 시사, 시 비평의 성과를 일별하면서 그 아래로 일관되게 흐르는 미학적 심급과 기율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그 미학적, 역사적 경계(景柵)를 그려보는 것을 일

1) 시와 관련한 논의를 담은 그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신동옥,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신동옥,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신동옥, 『한국 현대비평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신동옥, 『문학의 해석』, 고려대학교출판부, 1976; 신동옥, 『우리 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신동옥, 『문학의 비평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81; 신동옥, 『최신 문학개설』, 정음문화사, 1984; 신동옥, 『문학의 아름다움』, 지학사, 1985; 신동옥, 『우리의 삶과 문학』, 고려원, 1985; 신동옥, 『삶의 투시로서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8; 신동옥,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신동옥, 『숲으로 가는 별빛은 아름답다』, 문학세계사, 1991; 신동옥, 『우리 시의 짜임과 역사적 인식』, 서광학술자료사, 1993; 신동옥, 『한국문학과 시대의식』, 푸른사상, 2014.

차적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동욱의 새롭지만 잊히기 쉬운 면모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II. 시론(詩論)의 인식 - 창조적 미관과 민족 중심의 사유

신동욱은 우리 학계에서 근대문학 연구자로서의 모습으로 가장 뚜렷하고 돌출하다. 문학사적 자료를 비선택적으로 포괄하여 거기에 통시적 질서를 하나 하나 부여해가는 접근법은 당시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편폭이 넓고 절제와 균형을 취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납월복작가들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던 때에도 그는 정지용, 김기림, 오장환 등에 대해 접근하였는데, 물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시인론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논하면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상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점에서 선재적 이념이나 특정 방법을 우위에 두는 태도는 신동욱의 문학관이나 사관과 애초에 무연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미적 가치’, ‘아름다움’ 같은 보편적 언어예술로서의 속성을 남긴 유산들에 일관되게 호의적이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마디를 형성한 흐름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이념적 우열(優劣)을 따지지 않고 주요 서술 대상으로 삼았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미학관에 바탕을 두면서도 문학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다른 흐름들에 대해서도 포용력 있게 그 실증적 면모를 소개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점, 신동욱의 문학사학자로서의 균형 감각과 통합적 감식안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일 것이다.

이 가운데 신동욱이 시론사를 개괄한 평문 한 편이 눈에 띈다. 1981년에 쓰인 「한국 현대시론의 흐름」²⁾이다. 이 글에는 문학사학자로서의

2) 신동욱, 『우리의 삶과 문학』, 고려원, 1985. 원래 발표 지면은 『심상』 1981년 1월호이다.

면모를 갖춘 신동욱의 시론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때 그는 시를 둘러싼 현상 일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론을 집약하였고, 구체적 분석은 또 그것대로 이론이 애써 고안해 놓은 도구들을 이용함으로써 진척되게끔 하였다.³⁾ 비평사의 일환으로서 시에 관한 메타적, 역사적, 미학적 논의를 통시적 점검 대상으로 삼은 「한국 현대시론의 흐름」은, 신동욱 특유의 자료 섭렵과 사적 개관이라는 서술 방법을 당당하게 증명해준다. 이 글은 해방 이전 시기 검토 부분에서 신채호의 「천희당시화(天喜堂詩話)」로부터 시작하여 김억, 주요한, 김소월, 김석송, 박용철, 김광섭, 최재서, 김기림, 정지용 시론을 분석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해방후에는 백철, 조연현, 김동리, 오장환, 서정주, 조지훈, 김춘수, 송옥, 김병철, 김학동, 김은진, 한계진, 이재선, 김윤식, 김종길, 정한모, 김우창, 백낙청, 염무웅, 유종호, 김홍규, 박철휘, 문덕수, 이선영, 조동일, 박이문, 성기옥, 오세영, 김대행, 박두진, 윤재근의 시론을 순서대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자체로 근대전환기로부터 1970년대까지 흘러온 시론사의 한 집성(集成)이라고 할 만하다.

해방 이전 시론사 검토 부분은, 비록 신경향파 시론이나 프로시론, 임화 관련 주지주의 논쟁 등이 빠지기는 했지만, 20세기 전반기 시론을 매우 충실하게 축도(縮圖)로 담아낸 선구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리얼리즘, 순수서정, 모더니즘의 분법(分法)에 선형적 가치를 매기지 않고 개별 아티클에 대한 꼼꼼한 사실적 독해와 독자적 위상 부여를 피해간 연구이기 때문이다. 먼저 신동욱은 ‘효용론’에 관심을 두고 시작된 한국 시론의 역사를 신채호 사례에서 찾으면서 “그의 사상이 구국과 독립에 있었으므로 문학의 가치를 현실 사회의 광정과 독립 사상과

3) 츠베탕 토도로프, 『구조시학』, 광광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5, 21-22쪽. 토도로프는 이 책에서 시론의 기능 가운데 시작품과 이루는 순환적 호혜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어내고 있다. 신채호의 북방 문화적 현실주의의 반대편에서 제기된 김억의 남방적 세련미의 시관은 개성적 창의성과 음률을 존중하는 근대적 미학관의 서막을 열었고, 이러한 흐름을 주요한의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와 김소월의 「시혼(詩魂)」이 이어받았고 본다. 물론 신동옥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직선적 계승의 형태로 보지 않고 근대적 세련성과 민족적 정조나아가 영혼의 초월성과 영원성까지 사유한 성숙한 발전의 형태로 평가한다. 여기에 김석송의 민주주의 사상이 얹히면서 신동옥은 당대 이색적 흐름까지 포괄하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1920년대 시론의 흐름을 사회적 범주에서 다룬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사회성’ 범주는 예술을 사회적 생산물로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집단이 부가하는 가치를 다양한 형식, 장르, 스타일 등이 어떻게 내포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해명하는 것이다.⁴⁾

물론 신동옥의 시관(詩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시문학파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특별히 박용철의 평문에서 그는 “시의 생성적 과정과 체험적 통합을 해명한 점”을 높이 샀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련화하고 보편적인 한국적 서정을 심화시킨 점”을 큰 공적으로 추켜세웠다. 수용자가 발화자의 목소리를 엿듣는 방식 곧 독특하게 구조화된 독백으로서의 “서정 양식의 원형”⁵⁾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어지는 해외문학과, 모더니즘, 주지주의의 흐름이 시문학파의 자율성 논의와 접맥된다는 것을 해명한 것은, 비록 지금은 문학사의 상식이 된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온당하고 나아가 김기림, 최재서, 정지용까지 인용하여 해명하는 모더니즘 성과와 함께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네트 윌프, 『예술의 사회적 생산』, 이성훈 외 역, 한마당, 1986, 18쪽.

5)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189쪽.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문학의 일반적 특성은 자기 인식의 강화, 내면적 총체성, 기법에 대한 의존 등이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자본주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현실의 사물화와 파편화, 그리고 그로 인한 주체의 소외 등 이른바 근대화의 체험에서 기인된 것이다.⁶⁾ 신동욱은 모더니즘시가 이러한 측면을 예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국 시의 현대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물론 신동욱은 정지용의 「시의 위(威儀)」의 유명 구절 “근대시가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옴기는 실상 위의 문제에 그칠 분이 아니리라.”를 인용하면서도 시의 창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지용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적 형식인 말과 시를 수호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균형을 잃지 않는다. 상상력은 여기서 신동욱이 시를 평가할 때 매우 본질적인 자양분으로 등극한다. 신동욱이 강조한 상상력의 작용이나 역할은 존재 생성의 내면적 힘에 있다.⁷⁾ 반면 시적 상상력을 인간의 총체적 정신 속에서 인식론적 측면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때 상상력이란 위대한 창조적 질서의 원리로서, 제재들을 분별하고 질서화하며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⁹⁾ 어김없이 신동욱은 이러한 양 측면을 결합하여 서정시를 바라보는 비평 브랜드로 삼았다. 그리고 그 결실을 창조적 미관(美觀)과 민족시론의 결속 순간으로 도약시킨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과 민족성 중심의 비평적 관점은 초기 저작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다.

6) 나병철, 「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188쪽.

7) 프랑스의 문예학자 바슐라르(G. Bachelard)이다. 그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존재 생성의 힘을 '상상력'이라 규정하고, 덧붙여 상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광광수 · 김현,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76, 30-35쪽.

8)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3, 30-34쪽.

9)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88, 56쪽.

문학비평의 역사는 우리 문학이 생산된 역사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작품과 관여되지 않은 이론은 공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민족의 생활을 반영 또는 굴절한 것이라면 비평은 독자를 위하여 당연히 그것이 지닌 가치를 밝히고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민족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각 역사적 단계의 미의식의 여러 양상 및 창조정신의 전통과 그 발전상 및 변모상과 관련되게 마련이다.¹⁰⁾

문학비평의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 자체가 “문학이 생산된 역사와 직결”된다는 생각은 펍 기본적인 것이지만, 미적 자율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적 기율을 놓치지 않는 신동욱의 균형은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인지의 장을 열어준다. 민족의 생활을 반영 혹은 굴절한 결과로서의 문학, 이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궁극에는 “민족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각 역사적 단계의 미의식의 여러 양상 및 창조정신의 전통과 그 발전상 및 변모상”을 밝히는 것은 그에게 비평의 항구적 과제였던 셈이다. 글의 말미에서는 앞으로 심화해가야 할 부가적 과제가 암시되고 있다.

우리 시의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고 전망할 수 있는 방향은 보다 정밀한 미적 가치의 해명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견된다. 기왕의 업적들이 일반적으로 역사적 투시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였었는데 이것을 포용하면서 더 전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정련되고 세련된 연구와 관찰이 요구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다른 한 방향으로서는 역시 우리의 역사, 문화, 사회적 전통과 관련된 효용론적 해석의 심화나 세련화된 논문이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시와 독자라는 사회적 가치 소통의 통로와 수용의 관계를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¹¹⁾

10) 신동욱, 「서문」,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2쪽.

신동욱은 한국 시론의 통시적 질서를 구축하면서도 그 안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시 자체의 미적 가치와 그것이 민족과 상응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결합함으로써 해명해간다. 이를테면 그것은 “보다 정밀한 미적 가치의 해명”과 함께 “역사적 투시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는 관점의 균형적 결합, “우리의 역사, 문화, 사회적 전통과 관련된 효용론적 해석의 심화”를 모두 스스로에게 요청한 결과이다. 당대의 소통 통로와 독자들의 수용까지 의식함으로써 신동욱은 이후 비평의 장(場)에서 광범위하게 소개되는 수용 미학적 방법에까지 자신의 연구 방향을 암시한 것이다. 이처럼 신동욱은 매우 선구적인 시론사 개괄을 통해 이러한 스스로의 요구를 성취한 것이다. 결국 이는 신동욱 특유의 창조적 미관과 민족 중심의 사유를 견고하게 집약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Ⅲ. 시사(詩史)의 서술 - 주체성의 광정과 민족 현실의 증언

다음으로 우리는 신동욱의 시사(詩史) 서술 작업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 또한 문학사가로서의 그의 모습이 약여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취일 것인데, 이러한 성과를 보려면 우리는 단연 『우리 시의 역사적 연구』를 살펴보게 된다. 신동욱은 이 책의 표제에 ‘역사적 연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굳이 ‘시사(시문학사)’라는 명명을 피한 까닭은 전체가 시사 개괄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근대시론이 그 안에 병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부 ‘서정시와 역사적 인식’의 1장 ‘한국 서정시에서 현실의 이

11) 신동욱, 『우리의 삶과 문학』, 고려원, 1985, 360-361쪽.

12) 이러한 성과를 독립적으로 담아낸 후기 저작이 『한국문학과 시대의식』이다. 이 저서는 그의 말기 저작으로서 신동욱 비평의 궁극적 관심을 귀납하는 데 매우 맞춤형 사례라 할 것이다.

해'에서는 향가로부터 조선후기, 이육사의 시적 실천을 다루었고, 2장 '1920년대 한국 시의 미적 특질'은 이 저서의 핵심으로서 우리 근대시의 흐름을 매우 다양한 자료로 해석한 결과이다. 3장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주체성의 문제'에서는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밀고나가 그것을 주체성 문제와 연결한 신동욱 근대시사의 빼어난 메타 논의이다. 그 다음 2부에서는 이상화와 서정주의 율격미, 김소월과 정지용의 고향 인식을 다루었고, 3부에서는 근대시사의 여러 시인들에 대한 시인론을 망라하였다. 여기서는 1920년대 시사를 검토해보고자 하는데, 그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을 중요한 시기로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대를 규명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활, 문화, 정치사상 등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활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국권의 복권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민주사상과 시민의식을 지닌 민중의 거족적 행사였으므로 특히 현대성을 지닌다고 하겠다.¹³⁾

한국 근대시사에서 3·1운동 전후로부터 1920년대 초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신문, 잡지, 동인지 등의 광범위한 매체적 변화를 중심으로 폭넓은 다양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초유의 양적, 질적 전환기 검토 약기가 펼쳐진 데 대해 신동욱은 봉건적 잔재를 비판하는 계몽적 화자로 육당과 춘원을 예거하고, '우울과 애상미'의 시상의 사례로는 김억, 황석우, 박영희 등을, '황폐의식과 재적응의 정신'에서는 동인지 시대를 개괄하고 있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폐허』, 『백조』 등 동인지 시대는 감상적 충동에서 발원한 이른바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는데, 신동욱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는 민족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근거한 삶 의식

13) 신동욱, 『우리 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54-55쪽.

을 제시하여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아갈 힘과 정열”을 부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그 아쉬움은 필연적으로 ‘저항의지와 자유의지’로 옮겨져 홍사용과 이상화를 예로 한 당대 현실의 증언과 일련의 현실주의 옹호로 흘러간다. 그리고 김소월과 한용운에 이르러 민족 회복 의지를 발견하면서, 신동옥은 ‘가난과 증언적 화자’에서 신경향파 시인들 예컨대 김기진, 김창술, 유완희, 박팔양, 조명희, 임화 등을 다루게 된다. 이들은 약자에 대한 옹호와 긍정을 민족주의적 열정과 매개하거나 이산(離散)이라는 민족적 경험과 결부시킨 시인군(群)인데, 여러 자료적 제약과 금기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이 경향을 다룬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백조』에서 한 극점을 이루다가 김소월에 이르러 민족적 전체성과 보편성을 얻어간 현실주의 흐름은 1920년대 내내 한국 서정시의 저류로 흡수되어가면서 당대 주요 담론으로 부상한 사회주의의 영향과 함께 궁핍한 현실과 깊이 접속되어 한층 더 강화된 공동체적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분기와 전개는 3·1운동이라는 외재적 충격과 함께 도래한 이른바 문화정치의 맥락과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계몽적인 문화운동에 힘입은 바 큰데, 신동옥의 헤안이 이러한 흐름을 민족시의 그것으로 간취하게끔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근대시의 형성」¹⁴⁾이라는 글을 또한 주목하게 된다. 신동옥은 갑오경장, 동학농민운동, 기독교의 영향을 트라이앵글로 하는 근대 초기의 문화적 동향을 전경(前景)으로 삼아 육당 시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낸다.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외국문학 번역 과정을 서술해간다.¹⁵⁾ “개인적인 감수성과 통합된 서정성”

14) 신동옥,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15) 이러한 줄기를 가지는 논의는 초기 저작인 「근대시의 서구적 근원 연구」(『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적 연속성과 그 일관된 심화 과정을 엿보게 해준다.

이라는 근대시의 기율을 토대로 하여 자유시형이라는 근대시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탐구하되 그 중심을 “자아의식의 확립”으로 설명한 것이다.

근대시에서 ‘나라는 서정적 화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나아 시대, 나와 민족, 개별성과 전체성의 관계를 지양의 과정으로 인식한 때문이다. 여기서 근대 시인들의 자아와 민족적 주체와의 통합 의식이 매우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아의 존립이 적대적 힘에 의하여 위험함을 느끼고 그것의 통합된 전체로서의 민족적 주체성이 흔들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¹⁶⁾

여기서 자연스럽게 “현실 이해의 지평이 구체화되면서, 종래의 관념성이나 지나친 이상 지향적 경향들이 보인 비현실적 경향을 적지 않게 수정¹⁷⁾했다”는 관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가 식민지 현실을 의식하게 하면서 민족 주체성의 강조도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개인적 경험과 감성의 자유로운 발로를 억압하는 규범적 관습과 제도를 타파하려는 흐름도 있었음을 균형적으로 설명한 결과이다. 이는 근대적 주체의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이러한 속성을 신동욱 시사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이 시기에 형성되고 착근되는 근대적 주체가 1920년대의 시인 만해나 소월, 상화와 가지는 차별성에 주목하면서 신동욱은 중세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나 경험의 개별성과 정(情)의 긍정, 개아의 욕구 및 일상적 삶 자체의 가치 추구 등과 같은 탈중세 지향의 심화와 더불어 그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삶과 세계의

16) 신동욱, 「우리 근대시의 형성」,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20쪽.

17) 위의 책, 26면. 이러한 관점은 같은 책에 실린 「경향문화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문화 활동도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드높이면서 창조적 지속성을 유지한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위의 책, 363쪽.

전체상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국면을 긍정하게 된다. 식민지의 갈등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깊어지는 시점에서 그러한 열정이 근대적 주체의 개화보다는 그것의 유보와 함께 또 하나의 집단적 경험으로 해소하는 역기능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하다. 결국 신동욱의 시사 서술 작업은 미적 자율성과 민족 담론 사이, 개체성과 집단성의 사이, 중세 시대로부터의 연속성과 단절 사이에서 갈등하고 화해하고 통합된다. 그렇게 우리는 신동욱 근대시사의 중심 기율에는 주체성의 광정과 민족 현실의 증언이 흐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시 비평의 고갱이 - 언어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결속

신동욱은 196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문학평론가이다. 꼭 60년 동안 문학평론에 종사했고 『현대문학』 주간도 맡은 적이 있지만 신동욱이 근대문학 연구에 비해 문학평론을 존재의 중심에 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그는 아카데미한 근대문학 연구에 중심을 두고 학자로서의 길을 더 고단하고 지속적으로 걸었고, 동시대의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갔다. 물론 초기의 신동욱은 활발하게 월평과 작품론, 작가론을 썼고 그 성과는 다양하게 흩어져 그의 저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평론가 신동욱’보다는 ‘연구자 신동욱’이 더 승해 보이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현장 비평이 남긴 예리한 지점을 되살피게 되는데 특별히 광의의 ‘서정시’라는 용어를 중시하면서 장르적 포괄성과 전체성을 중심으로 이어간 논의들을 참고할 만한 것이 많다.

그의 이러한 서정시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티클이 「서정시와 시간의식」 일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서정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

에서 출발하여 시대를 증언하고 민족을 대변하고 있다는 공동의식을 독자들에게 일깨운다.”¹⁸⁾라고 강조하면서 엄연한 시간예술로서의 서정시론을 펼쳐간다. 동시대의 사례보다는 역사적 범례를 통해 김소월, 한용운, 유치환의 시를 주로 다루었지만, 그의 시간론과 서정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이 글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또한 근대적 주체가 확장해가는 민족의식에 주목하면서도 개별적 목소리의 차이에 주목하는 비평적 감각이 반영된 것일 터이다. 그 점에서 서구적 의미의 근대적 개인주의와 신동욱의 비평은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신비평이나 구조주의 같은 작품 자체의 논리적 분석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동욱은 김소월의 「초혼(招魂)」,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정주의 「추천사(鞦韆詞)」와 「국화 옆에서」로 이어지는 빼어난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남겼고, 개별 시인론으로는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김기림, 이희승, 윤동주, 박목월, 박두진, 조병화, 전봉건, 허영자, 김지하, 신대철, 이지엽, 고운기 등을 다루었다.

박목월의 시를 읽으면 누구나 이 시인의 독특한 서정성에 매료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한 형상적 언어의 조직과 유려한 울격 그리고 때로는 생략의 묘미를 적절히 살려내는 여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정성의 특징을 좀 더 들여다보면 쉽게 사라지고 형언하기 어려운 사물의 인상이나 그에 대응되는 서정의 감각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포착하여 섬세하게 드러내는 창의적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사물의 깊이 있는 통찰에 의한 발견으로서의 시적 성취를 볼 수도 있다.¹⁹⁾

18) 신동욱, 「서정시와 시간의식」, 위의 책, 83쪽.

19) 신동욱, 「박목월 시와 고향의 흙」, 위의 책, 224쪽.

김지하의 시편들은 역사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를 사실성에 입각하여 노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사실(事件, 史實, 事實)에 관한 시인의 집요한 인식적 개입과 그것의 상관관계를 일깨우려는 정열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세속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이 시인은 옥살이를 오랫동안 감내하면서 계속하여 시를 썼는데, 이 점에서도 그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성취에의 모색은 시 창조 행위와 동질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²⁰⁾

서정성의 극치를 보인 박목월의 시편에서 “쉽게 사라지고 형언하기 어려운 사물의 인상이나 그에 대응되는 서정의 감각화”를 읽거나 대표적인 참여시인 김지하의 시편에서 “시 창조 행위와 동질적 의의”를 발견하는 신동욱의 시선은 다양한 시사적 편폭을 받아들여려는 균형에 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과 필치로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들에게서는 현실과 매개하는 상상력을, 저항시인들에게서는 서정성의 깊이를 읽어낸다. 그렇게 언어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결속해가는 신동욱의 비평은 시인 당대와 지금의 시대를 연결하면서 비평이 문학사의 일부이고 또 독립적인 참여 행위임을 알게 해준다.

신대철의 시를 읽는 사람은, 그가 자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알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자연을 시의 대상으로 수용해야 하며, 그 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쉽사리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의 시가 난해한 것은 그가 선택하고 다스리는 평이한 진솔과, 갑작스런 은유를 보이는 표현 방법과 가치 선택에도 관계된다. 작품 「흰나비를 잡으러 간 소년은 흰나비로 돌아와 앓고」에서 흰나비는 자연을 표상하며, 서정시의 주체인 소년과 나비라는 대상이 은유적으로 통합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융합은 순진의 가치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로 읽

20) 신동욱, 「김지하의 大說 『南』」, 위의 책, 255쪽.

을 수 있다.²¹⁾

신대철의 첫 시집 『무인도를 위하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신대철의 자연 표상을 통해 “순진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것은 왜 ‘무인도’인가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신동욱은 신대철의 시가 “현실에서 구할 수 없는 가치를 내면적으로 지녔을 때, 자연과 동화된 순진의 가치가 그리움으로 요청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²²⁾라면서, 무인도야말로 그러한 심리적 갈구가 만들어낸 표상임을 강조한다. 그렇게 신동욱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닿을 수 없는 천진성의 영역을 ‘무인도’로 읽어내고 있다. 서정시가 드러내고 은폐하는 난해한 언어의 회로를 따라가면서 가치론적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논자의 모습이 약여하게 나타난 사례일 것이다.

물론 신동욱은 소설을 더 많이, 자주, 애정 있게 분석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그의 산문정신이 발현된 것이지만, 앞서서도 암시했듯이, 서정시를 다룰 때 신동욱의 언어적, 민족적 균형이나 자율성과 집단성 사이의 균형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그의 내면에 흐르는 낭만성과 현실성이 서정시라는 장르에서 침예하게 결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동욱의 비평은 그렇게 서정시를 통해 인간의 위엄과 민족의 가치를 탈환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긍정에서 찾아진다. 문학비평의 사명은 그러한 과정을 낱알이 추적하고 질서화하여 미학적인 것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가 주로 채택한 ‘평민문학’의 개념 역시 그가 강조해온 ‘미적 가치’ 안에 담긴 늘변과 소박과 무기교를 통해 애정의 대상을 넓혀간 시대 반영의 미학이 일관되게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신동욱의 비평적 성과는 시적 경험과 언어의 세련성, 이념을

21) 신동욱, 「신대철의 詩와 自然認識」, 『우리의 삶과 문학』, 고려원, 1985, 276쪽.

22) 위의 글, 276쪽.

넘어서거나 모두 품는 예술성, 상징과 서정을 결속한 유려한 텍스트성을 높이 평가한다. 서정적 주체가 해독하고 표현해가는 미학적 구축 과정을 공들여 재구성하면서도 민족성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놓치지 않는다. 이 점은 근대문학이 전통과 단절되었다는 근대문학 이식론을 넘어 전통 계승론 입장에 그가 서있음을 선명하게 알려준다. 리얼리즘, 민족문학, 민중문학의 흐름을 표나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계층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본원적 애정을 표출한 작가, 시인들에게 한결같이 호의적이었던 신동욱의 비평안(眼)은 그 점에서 언어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굳건하게 결속한 균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신동욱 비평을 끌어온 근원적인 힘은, 대립되는 것들의 갈등으로 분열된 자아를 초월적 기능(transcendent function)에 의한 통합으로 극복하는 데서 발원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V. 마무리

지난 100년간 펼쳐진 한국 근대시는 그 역사가 그리 깊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몇 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서구 근대시의 흐름을 경험하고 그 내질을 모국어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역사를 일구어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찬찬한 성숙보다는 숨가쁜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순차적이고 온전한 축적보다는 '새것'에 대한 미학적 조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지적 연대보다는 논쟁 위주의 배타성이 문학사에 걸쳐 승했던 것도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적 형상이 요구하는 이념과 방법이 지극한 혼류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조건 속에

23) 올란데 야코비, 『칼 융의 심리학』, 이태동 역, 성문각, 1978, 221쪽.

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근대시의 역정은 순탄한 선조적 진행이 아니라 무수한 갈등과 착종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신동욱의 시 연구 혹은 비평은 이러한 궁핍하고도 혹독했던 외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시사의 내용을 풍요롭게 가꾼 역설적 토양이었음을 증언하는 논리적 언어이다. 그는 한국 근대시가 때로는 엄혹한 역사를 지켜낸 파수꾼으로 때로는 인간다운 삶을 지킨 뜬눈의 불침번으로 때로는 미적 자율성을 화두로 내세운 치열한 장인으로서의 선구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우리가 살핀 대로 신동욱이 한국 근대시 관련 현상을 다루고 분석한 이러한 성과는 그 자체로 모국어에 대한 경험적 공감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성과는 시론, 시사, 비평 쪽으로 나뉘어 각양의 모습으로 현상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원류에서 솟아난 ‘서정성과 민족성’에 대한 믿음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남월북작가들이 해금되어 그들에 대한 연구가 활력을 얻었던 1990년대 이후 그는 『1930년대 한국소설 연구』라는 역저를 통해 소설가들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여 득의의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신동욱의 이름이 없던 본격적인 정지용, 임화, 백석, 이용악, 오장환 논의는 남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신동욱의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의 중심에서 주변까지 안 미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 점에서 대가급 연구자 및 비평가로 그의 이름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이제 신동욱이 그러한 기억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번 조명이 출발점이 되기를 앙망해본다. 가신 이의 거대한 발자취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_____,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_____, 『한국 현대비평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_____, 『문학의 해석』, 고려대학교출판부, 1976.
_____, 『우리 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_____, 『문학의 비평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81.
_____, 『최신 문학개설』, 정음문화사, 1984.
_____, 『문학의 아름다움』, 지학사, 1985.
_____, 『우리의 삶과 문학』, 고려원, 1985.
_____, 『삶의 투시로서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8.
_____,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_____, 『숲으로 가는 별빛은 아름답다』, 문학세계사, 1991.
_____, 『우리 시의 짜임과 역사적 인식』, 서광학술자료사, 1993.
_____, 『한국문학과 시대의식』, 푸른사상, 2014.

2. 논문과 단행본

- 곽광수·김현, 『바솔라르 연구』, 민음사, 1976.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나병철, 『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3.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88.
올란데 야코비, 『칼 융의 심리학』, 이태동 역, 성문각, 1978.
자네트 윌프, 『예술의 사회적 생산』, 이성훈 외 역, 한마당, 1986.
츠베탕 토도로프, 『구조시학』, 곽광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5.

신동욱의 시론(詩論) 연구

유성호

신동욱의 시론은 궁핍했던 외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시사(詩史)의 내용을 풍요롭게 가꾼 역설적 토양이었음을 증언한 논리적 언어이다. 그는 한국 근대시가 때로는 엄혹한 역사를 지켜낸 파수꾼으로, 때로는 인간다운 삶을 지킨 불침번으로, 때로는 미적 자율성을 화두로 내세운 치열한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 너비와 지속성에서 소설사나 비평사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신동욱의 내면과 실존을 규율한 큰 수원(水源)은 서정시를 통해 역사와 삶을 모색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는 언제나 내면에 흐르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침잠과 초월의 언어로 표현하였고, 그가 한국 근대시 관련 현상을 다루고 분석한 성과는 모국어에 대한 경험적 공감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과는 시론, 시사, 비평 쪽으로 분화하여 현상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원류에서 솟아난 ‘서정과 민족’에 대한 믿음의 표출이었다.

핵심어 : 시, 비평, 서정, 민족, 공감

A Study on the Literary Criticism by Shin, Dong-wook

Yoo, Sung-ho

Literary criticism by Shin, Dongwook is a logical language proving that impoverished external conditions was a fertile soil for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He assessed that modern Korean poetry did not mind playing the role of a guard preserving harsh history, a night watch depending human life, and a ardent artisan advocating aesthetic autonomy. Though the fountainhead that regulated his inner world and existence did not reach to the history of criticism or novel in width and continuity, it might have been a moment searching for history and life through poems. As much, Shin, Dongwook expressed his feelings and thoughts flowing in his inner world with a language of withdrawal and transcendence. His analysis on phenomenon of modern Korean poetry is also a process of experiential sympathy on native language. Though divided and presented in poetics, poetic history and literary criticism, it was an expression on the belief of 'lyricism and Korean people' that spring from a single headwaters.

Key-words : Poem, Criticism, Lyricism, People, Sympathy

이 논문은 2022년 4월 30일에 접수되었으며,
2022년 5월 19일에 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